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문희성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70 |
|----------|------|

발의연월일 : 2021. 6. 7.

발 의 자 : 문희성, 김지근, 노세영
강혜경, 박경흠, 권태호
신성봉, 김기환, 이명녀,
박채연, 안영호,

1. 주 문

- 지난 2월 발생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하며, 미얀마 군부의 무력행위 등 반(反)민주주의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함.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미얀마의 민주화 회복을 위한 국제적 의지를 다지고 실행할 것을 요구하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얀마 시민의 민주주의 회복 운동을 지지할 것을 표명함.

2. 제안이유

- 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한 강력히 규탄과 유혈사태 즉각 중단 촉구
- 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촉구와 조속한 민주정부로의 원상복귀 촉구
- 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지지 표명

3. 송부대상 : 대통령비서실, 대한민국 국회, 외교부, 주한미얀마대사관

4. 결의문(안) : 붙임

미얀마 민주화운동지지 및 군부 쿠데타 세력 규탄 결의안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심각한 인권유린과 무자비한 유혈진압을 일삼고 있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 규탄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적극 지지한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선을 부정선거로 매도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헌정질서를 파괴하며 비상사태선포에 이어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을 비롯한 주요 민주 인사를 구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어 4개월이 넘도록 민주주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강제진압하며 저항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납치하고 감금, 고문을 저지르는 등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고 있다.

더욱 이 과정에서 어린 생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등 지금까지 900여명에 달하는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는 비극을 초래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규탄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며 정당화 될 수 없는 폭거를 일삼고 있으며 차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인권유린행위를 이어오고 있다.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며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불법적 국가 권력을 결코 용납 받지 못한다. 미얀마 국민들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제사회의 관심과 동참, 그리고 연대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4·19 혁명'과 '5·18 민주화 운동'을 거쳐 '6·10 민주항쟁'에 이르기까지,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투쟁한 많은 분의 숭고한 희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맞서 싸운 끝에 오늘날의 민주국가를 건설했다.

이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다가오는 제34주년 6·10 민주항쟁을 기념하며 22만 중구민의 뜻을 모아 미얀마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NUG)와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을 적극 지지하며 응원하는 바이다.

아울러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위기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위나 생명을 도외시키고 끔찍한 만행과 잔혹한 폭력행위를 이어오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 세력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미얀마 군부가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행사하는 무력진압과 이로 인한 유혈사태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정부로의 원상복귀를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국제적 의지를 갖고 다각적인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의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지한다.

2021년 6월 8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